

신명의 개념화 및 구조화 연구

한 민* 한 성 열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사람들의 신명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신명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로 신명을 경험하는 일반인들의 자료를 개방형 설문 및 반구조화 면접의 방식으로 수집하고 근거이론의 절차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신명이 경험되는 과정과 신명경험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명은 전환적 사건의 발생에 의해 자신의 자기가치감이 회복되거나 타인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일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의식을 확인할 때,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관련된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즐거움, 유쾌함 같은 1차적 쾌감과 함께, 자신의 자기가치감과 연계된 2차적 쾌감을 느끼며, 그러한 감정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그 사실에서 다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들을 표출하기 위해 분출 및 몰입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명의 행동들은 신명의 감정들을 강화하며, 강화된 감정은 다시 신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감정과 행동의 피드백을 통해 신명이 경험되고, 이후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주요어: 신명, 구조, 근거이론, 신명경험의 구조

과거 신명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 및 한 에 대한 통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을 뿐(김
국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한국문화 열규, 1982; 이규태, 1991; 이어령, 1982; 조동일,

1997 등), 신명의 정확한 개념과 구조 등을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적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신명의 체계적인 개념화와 구조화를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로서 신명의 현상적 특징들과 신명이 의미하는 바를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한민, 한성열, 2007).

본 연구자들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신명은 강렬한 긍정 정서적 경험이며, 빠른 속도로 집단에 전이되고, 신명이 전이된 집단은 일종의 문화적으로 약속된 무질서 상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표현들이 가능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명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누적되었던 부정적 정서들을 배출하며, 그 같은 과정을 통해 활력과 능력감 등의 효과를 얻는다.

신명의 유형

한편, 이러한 신명경험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이 해소되는 방식에 따라 신명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한민, 한성열, 2007).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기존의 연구들(김열규, 1982; 이어령, 1982; 조동일, 1997 등)에서 ‘한이 풀리어 나타나는 신명’으로 언급되어 왔던 한과 신명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 것으로, 한과 신명의 관계에 대한 이전의 모호한 설명에서 나아가 한이 해소되어 신명에 이르는 경로를 한이 해소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구체화하였다.

한(恨)의 해소와 관련된 신명의 두 유형

첫 번째 유형의 신명은 한의 원인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한의 직접적 해소에 의한 신

명이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한이란 자기가치감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이전까지의 한스런 삶을 일거에 변화시킬 ‘전환적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이 회복되고 신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신명은 이도령과 재회한 춘향이의 심정이나, 오랜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을 맞은 백성들의 심정과 유사한 질의 마음경험을 의미한다(한민, 한성열, 2007).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신명은 신명이 수행해 온 기능적 측면, 즉 신명이 부정적 정서의 배설체계로서 기능해 온 역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의 신명을 경험할 기회, 즉 이도령과 춘향의 재회나 민족 해방과 같은 극적인 사건의 발생에 의해 자기가치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미루어 볼 때, 신명은 그보다는 훨씬 자주 경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신명은 한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해소되었기 때문에 경험한다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조성되는 어떠한 계기에 의해 발생한다. 즉, 명절이나 전통놀이, 근래에 와서는 친목회나 회식 등의 계기를 통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동안 누적되어온 부정적 정서를 배출하고 그로 인한 해소감과 활력 등을 얻는다. 그러한 계기적 사건을 통해 조성된 신명에서의 감정의 전이 및 약속된 무질서의 상태는 한을 비롯한 부정적인 정서들과 표출할 수 없었던 욕구들을 보다 쉽게 분출하고 배설할 수 있게 한다. 부정적 정서들이 배설된 후에 느껴지는 해방감과 생명력 등은, 누적된 한으로 인해 손상받았던 자기가치감을 회복시키며 또 다른 앞날을 살아갈 의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한민, 한성열, 2007).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신명이다. 이러한 유

형의 신명은 특히 공동체에서의 ‘우리의식’을 바탕으로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역사·문화적으로 신명은 주로 명절이나 전통놀이의 현장에서 경험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존재해왔다(채희완, 1983). 농경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안녕과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명절이나 전통놀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우리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명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신명경험의 체계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가 거의 사라진 현재에도 단합대회나 회식문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신명에는 한(恨)의 간접적인 해소라는 과정이 뒤따른다. 즉, 한의 해소 자체가 신명의 원인이 아니라, 신명을 먼저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한이 간접적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은 ‘못 배우고 못 사는 한’이나 ‘누군가에게 당한 부당한 피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삶에서 누적되어 온 부정적인 정서를 통칭한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된다. 한국인들은 신명을 통해 한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부정적 정서들을 분출하고 새로운 나날을 살아갈 활력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학, 민속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주로 논의된 신명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신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몰입경험(flow)과 관련된 신명의 유형

한편, 지금까지 밝힌 두 가지 유형의 신명과는 별개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신명이 있다. 전통예술, 특히 한국무용 전공자들의 경험으로서의 신명(오율자, 1995; 유진, 김장우, 2004; 김준희, 2005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신명은 무용수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경험이라는 점과 행

위자의 숙련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몰입(flow)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몰입(flow)이란 외부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autotelic) 행동을 통해 얻는 경험을 의미하며, 그 행동에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Csikszentmihalyi, 2000). 전통예술 분야에서 신명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명과 몰입경험의 유사한 성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몰입과 신명의 일차적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몰입 경험의 특징과 신명 경험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최적경험인 몰입의 상태와 신명경험을 묘사하는 글들은 여러 부분에서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할 만한 소지가 많다. 우선, 한국의 신명은 엑스타시에 가까운 경험¹⁾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Csikszentmihalyi(1975)가 묘사한 ‘무아지경 혹은 황홀경’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그 외에도 전통예술 분야에서 신명경험을 묘사한 부분들을 보면 몰입경험과의 관련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오율자(1995) 및 유진과 김장우(2004) 등이 제시한 신명 경험의 특징인 초월성이나 이원론적 인식의 용해, 자기 확신적 체험 등도 Csikszentmihalyi가 밝힌 몰입의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오율자는 전통춤에서 경험되는 신명은 무용수의 개인적 경험이며 신명 경험을 위해서는 기술적 숙련도가 전제되어야 함을 덧붙이고 있는데, 신명의 이러한 점은 과제와 난이도와 숙련도의 함수(Csikszentmihalyi, 1977, 1988)로 표현되는 몰입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 김인회, 김태선, 홍일식, 최길성, 김열규, 유동식, 이부영, 서대석, 이보형, 서연호 (1982).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p.63). 서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그렇다면, 몰입과 신명은 동일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 쉽게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몰입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신명에 대한 묘사는 주로 전통무용 전공자들에게서 보고되는 것으로 민속학, 한국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한 신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무용 전공자들이 경험하는 신명은 어떠한 도전과제(무용 작품)를 수행하는 개인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몰입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의 신명은 몰입과는 구분되는 다른 특징들을 지닌다. 가장 극명한 예로, 전통무용수들의 신명에 대한 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명현상의 대표적 특징이라 생각되는 집단적 전이나 약속된 무질서 등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몰입과 신명이라는 두 개념이 파생된 역사·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Csikszentmihalyi(1997)는 몰입 개념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일은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문화적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일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그로 인해 생활방식 및 일에 대한 관념 자체가 변화하여 현대로 올수록 일 자체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일과 여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 몰입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기피의 대상이었던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몰입 이론인 것이다.

하지만 신명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은 기원

적으로 종교적 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김열규, 1982), 사람들의 집단적인 동기(한풀이 등)와 관련하여 역사·문화적으로 경험되어 왔다. 따라서 몰입과는 달리, 그 발생조건에 있어서도 명확한 목표나 도전과 기술의 균형 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적인 동기와 같은 또 다른 조건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세 번째로 발현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몰입은 어떠한 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전제로 한다. 물론 어떠한 집단이 동시에 몰입 경험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과 그 결과는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신명은 반드시 집단적인 경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전이되기 쉽다는 특성을 지닌다(김열규, 1982). 전통무용 전공자의 경험을 제외한 신명경험이 풍물 놀이판이나 월드컵의 거리응원에서처럼 강렬한 정서적 경험과 역동적인 행동양식을 수반하는 반면, 몰입은 체스선수나 의사 등의 경험 등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정적(靜的)인 정서 및 행동으로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몰입과 신명은 그 기원과 발현양태 등으로 미루어 서로 동일한 경험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통무용 전공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에서 유추하건대, 한국인들이 ‘신명’이라 부르는 현상 및 경험 중에는 몰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한(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행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며, ‘우리’라는 공동체적 경험이라기보다는 행위자의 개인적 경험과 보다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과 관계된 신명의 세 가지 유형과 그 각 유형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신명의 세

유형 중, 한의 직접적 해소에 의한 신명은 한의 해소가 이전까지의 삶의 질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극적인 사건의 발생에 기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아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이라 명명하였으며, 한의 간접적 해소와 관련한 신명은 신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우리의식을 확인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예술 등에서 연구된 신명은 그 경험이 몰입(flow) 경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몰입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신명’으로 명명하였다.

표 1. 신명의 유형에 따른 공통점 및 차이점

	발 생	특 징	비 고	
한의 해소와 관련된 신명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 전환적 사건의 발생 (ex. 해방, 상봉, 합격..)	- 과거의 부정적 자기가치가 개입 - 일회적 경험	- 한(恨)의 직접적 소멸 -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회복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 우리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 (ex. 명절 등에서의 공동체 행사)	- 감정의 전이 및 공경험 (共經驗) - 부정적 정서의 해소체계	- 한(恨)의 간접적 해소 - 우리(집단)의 가치의 재확인
몰입(flow)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신명	- 무용 등 자기를 표현 할 수 있는 계기 (ex. 예술행위)	- 무아지경, 망아경 - 표현행위 중에 경험	- 개인적 경험에 초점	

그러나 이러한 신명의 유형들이 서로 상호배타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떠한 집단에 일어난 전환적 사건이 집단 구성원들의 우리의식을 확인하게 하여 신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예, 집단 목표의 달성 등), 춤추고 노래하는 신명 상황에서 몰입(flow)과 유사한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명의 유형을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명이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가지며, 어떠한 과정에 의해 경험되는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은 이론적 연구에서 나아가 실제 신명을 경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바탕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심리학적 시각에 근거한 질적인 접근을 통해 일반인의 경험으로서의 신명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여 이론적 논의에 의해 도출된 신명의 유형과 성격을 구체

화할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 및 절차

개방형 설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실시되었다. 우선 개인적 신명경험에서 예상되는 연령에 따른 편차를 방지하고 전반적인 신명경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리서치 기관(www.embrain.com)에 의뢰하여 연령대별(20대 35명, 30대 33명, 40대 34명, 50대 이상 31명) 총 133명(남 65명, 여 68명)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신명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와 면접을 위한 조사로 서울 소재 K 대학교에

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68명의 대학생(남 28명, 여 40명, 평균연령 22.3세)들과 서울 및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일반인 19명(남 5명, 여 14명, 평균연령 36.8세)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²⁾ 이들 중 설문의 응답에 드러난 신명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고 진솔이 구체적인 응답자들을 선택하여 동의절차를 거친 뒤, 총 17명(남 8명, 여 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

자신이 경험한 신명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신명상황과 그 원인 및 과정, 당시의 감정상태와 행동, 해당 사건의 영향력 등을 묻는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과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개방형 설문은 개인의 경험이나 정서를 추출해 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신명경험의 대략적인 구조를 추출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만으로는 신명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개방형 설문에서 수집된 응답들 중 보다 현저한 신명경험을 기술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묘사를 남긴 이들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사람들의 경험의 의미를 연구하고, 경험에 대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기술하거나, 그들 자신의 삶 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관점 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Kvale, 1996). 이러한 면접에는 묻고자 하는 질문이나 질문방법, 질문의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실시하는 구조화 면접과, 어떤 제한도 없이 피험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알아보는 비구조화면접, 그리고 중심 개념의 비교 등을 목적으로 그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적 틀을 가정하고 실시하는 반구조화 면접이 있다(Mason, 1996/1999).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의 방식은, 신명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대략적인 틀(원인, 상태, 영향)을 가정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나기 힘든 신명경험에 있어서의 심리적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면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반구조적 면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보고식 개방형 설문

참가자들은 개방형 설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읽고 이후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개방형 설문에서 사용한 지시문과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신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풍물놀이나 탈춤 등 전통 예술의 현장 혹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의 거리 응원의 모습도 ‘신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되면 ‘신명’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2)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와는 달리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방법을 따랐다. 이론적 표집이란 양적 연구의 무선적 확률표집과는 달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 특징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이다(Glaser & Corbin, 1967). 본 조사의 경우, 신명경험이 있거나 신명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들도 그러한 경험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
니다. 여러분이 ‘신명난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부터 ‘신명나는’ 경험을 했었던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떠올리면서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그 경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② 그때, 당신이 느꼈던 기분, 감정,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③ 당신은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
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 마음의 과정을
되짚어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십시오.

④ 그때,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십시오.

⑤ 당신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⑥ 그 사건은 당신의 마음이나 생활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면접의 절차와 단계는 Mason(1996/1999)이 제
시한 것을 따랐다. 하지만 질문의 순서는 미리
정하지 않았으며,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나 개념
에 주의를 기울였다. Spradley(1979)가 제안한, 대
조적 질문하기, 비대칭적 방향 바꾸기, 내용 요
약하기, 관심표현하기, 인터뷰 대상의 언어로 다
시 말하기, 가설적 상황 창조하기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현상에 관련된
추적질문과 이미 도출된 개념 및 사례와 비교하
기 위한 대조질문 역시 활용하였다.

면접의 과정은 참여자의 허락을 얻어 MP3에
기록하였으며, 면접의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
상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포화시점에 도달
하면 종료하였다. 소요된 평균적인 시간은
30~40분 정도로 일반적인 근거이론 연구에서의
면접시간보다 다소 짧았는데, 그 이유는 연구
의 대상 현상인 신명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경험인데다가, 이미 실시한 개방형 질문으로부
터 대략적인 사전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세부
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본 면접
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수집도구
는 휴대용 MP3와 면접자가 사전에 실시한 개방
형 질문지와 면접지침, 메모노트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의 과정은 표 2와 같다.

반구조화-면접

표 2. 면접 단계와 구체적 주제

주요 항목과 단계	구체적 주제와 화제
소개 및 설명 ↓	
자신의 신명경험에 대한 진술 ↓	개방형 질문의 응답에 대한 상기
신명경험 이전의 개인적 경험 ↓	신명경험 이전의 상황(심리적, 상황적)

주요 항목과 단계	구체적 주제와 화제
구체적 질문들 ↓	신명을 유발한 계기나 조건, 신명상황에서의 특정 면에 대한 질문 신명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문
자신의 경험이 아닌 신명과의 비교 ↓	타 유형의 신명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경험에 대한 추가적 질문
추가적 질문들	기타 긍정적 정서경험에 대한 질문

분석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이론의 분석틀을 차용하였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제안되어 주로 간 호학과 보건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일반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고 발전하여 왔다(Charmaz, 2000). 이러한 근거이론의 주된 목표는 가설의 실증적인 검증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 경험에 근거한 일반인들의 주관적인 설명에 의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Bowers, 1990).

본 연구가 자료분석의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신명은 이제까지 한국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문화전문가들에 의해 통찰적이고 직관적인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즉, 일반인들의 경험에 근거해 신명이 어떠한 현상이고, 언제 발생하게 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밝힌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신명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경험, 상호작용 등의 다양한 과정을 내부자적 관점에

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경험적 자료에 근거를 두고 이론을 개발하는 근거이론의 분석틀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신명의 총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신명을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신명이 어떠한 원인과 과정에 의해 발생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이나 신명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등을 탐색하기가 어렵다. 근거이론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부족을 극복하고 개념과 변인들을 발견하고 그 관계에 대한 가설적 진술을 함으로써 신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가설적 이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분석절차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료를 해체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비슷한 특질을 가진 것들끼리 모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개방코딩과 개방 코딩에서 드러난 범주들 사이에 서로 의미 있는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축코딩, 그리고 범주들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선택 코딩이 그것이다.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는 그 외에도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포함하는데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전반적인 분석절차를 따랐으나 연구의 특성상 몇 가지의 세부절차를 변형하거나 생략하였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본 연구가 이론연구에서 출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근거이론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신명이라는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논의들은 비록 체계적인 이론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한국문화에서의 신명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풍부한 경험 및 통찰이라는 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신명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고, 구성된 틀에 따라 실질적인 신명경험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응답자들의 자료는 이론연구에서 가정한 틀에 의해 우선적으로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가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신명경험의 성격에 있다. 연구과정 전반에서 알 수 있었던 신명경험의 특징은 신명이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기 곤란한 특수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기존 연구(김인회 외, 1982)는 물론, 면접의 사례들(“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 없이, 오로지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만 존재하는 느낌”(사례 33), “붕 뜬 것 같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다.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었다”(사례 62) 등)에서 드러났듯이, 신명의 상황은 무아지경,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기

분, 상태이다. 실제로 예비면접 단계의 일부 응답자들은 신명경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곤란해 했으며 신명상황에서의 다양한 감정과 행동들을 분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서 그들의 신명경험을 효과적으로 추출해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수집의 틀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조치로 취해진 것이 응답자들의 신명경험을 감정과 행동, 그리고 그러한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유와 신명경험의 영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론연구에서 신명을 상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한민, 한성열, 2007).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들을 이와 같은 연구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정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이란 자료를 해체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비슷한 특질을 가진 것들끼리 모아 분류하고 범주³⁾화하는 과정을 뜻한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개방코딩의 분석절차는 수집된 자료들 한 줄씩 분석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문장 등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줄 단위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추출된 개념들을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들끼리 분류하여 상위범주를 만들고, 이론적인 배경 및 원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거쳐 범주의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이론적 가정에 근거하여 범주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우선 자료를 신명의 서로 다른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자료는 신명경험을 구분한 질문들, 즉 신명의 원인과 감정

3) 범주(Categories):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비슷한 특질을 가진 내용들을 대표하는 단위

및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신명경험의 영향력 등의 상위범주 내에서 하위 범주를 발견하고 명명하는 순서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 축 코딩(axial coding)이란 개방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개방코딩에서 드러난 범주들 사이에 서로 의미 있는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축 코딩은 개방코딩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중심현상과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출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러한 조건들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가정한 신명의 유형에 따라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명의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범주들의 성격이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신명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하였던 유형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절차인 과정분석은 연구의 특성상 생략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신명은 근거이론의 틀로써 연구되어온 이혼 후의 적응이나 불임문제의 해결, 암환자의 삶의 질 변화 등과 같은 사건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일어나는 경험이므로,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에 맞추어 기술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택코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

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Strauss & Corbin, 1998). 선택코딩의 절차는 현상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능을 하는 핵심범주를 발견하는 ‘핵심범주의 발견’과, 축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핵심범주에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켜 서술적 문장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 윤곽’, 본격적으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고 이를 진술하는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신명경험의 구조를 서술하는 이야기 윤곽의 전개까지는 근거이론의 절차를 따랐고,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은 양적방법을 이용한 구조모형 검증연구의 가설설정 단계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신명유형의 분류

분석에 들어가기 전, 수집된 자료를 개방형 설문문의 첫 번째 문항(사람들이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응답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의해 도출된 신명의 유형(표 1)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 및 정서의 원인과 질, 심리적인 과정 등이 다를 것이라 판단하여, 각각의 신명 유형에 따라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개방형 설문 및 반구조화 면접을 통해 얻은 총 220명의 응답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사례들을 제외한 187명의 사례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한의

직접적 해소로 인한 신명과 한의 간접적 해소와 관련있는 신명의 유형은 나타났지만, 몰입경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론적인 논의와는 달리 개인의 실제 신명경험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신명상황을 묘사한 기술 중에서 몰입경험의 특징과 유사한 부분은 발견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인 신명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몰입경험의 특징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몰입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신명의 유형은, 그러한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주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으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개방형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신명경험의 유형은, ①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②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③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의 세 가지이다.

응답의 분류작업은 연구자 자신과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석사과정 대학원생 2인(여; 25, 26세)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류는 신명을 경험하게 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즉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으로 응답자의 삶의 국면이 크게 변화한 종류는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으로, 신명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함께 있는 이들과의 교감 및 소속감에 의한 것일 때에는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으로, 그리고 응답자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경우일 때에는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평가자 3인의 평정자간 일치도(Cochran's Q)⁴⁾는

4) 평정자간 일치도는 연구자가 분류한 유형을 1로 코딩하고, 평정자 2인이 분류한 유형은 연구자

3.714 ($p=.156$)로 평가자들이 분류한 신명 유형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분류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신명경험 중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이나 공연 혹은 악기연주와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신명이 그러한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명경험으로 꼽은 2002년 월드컵은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이면서 또한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의 특성을 갖는다. 즉, 한국의 극적 승리나 4강 진출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전환적 사건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온 국민이 함께 했던 거리응원에 초점이 두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의식이 두드러진다.

이런 경우에는 신명을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에서 그 자신이 2002년 월드컵의 어떤 측면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신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분류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초점에 따라 진술하고 있는 신명의 감정 혹은 심리적 과정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공연에서 연기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는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과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의 특성을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는 자기표현의 과정이 강조되고, 연거나 연주를 함께 하는 이들(동료 배우나 연

가 분류한 유형과 일치하면 1로, 일치하지 않으면 2로 코딩하여 Cochran's Q 검증을 실시하였다. Cochran's Q 검증의 유의도가 유의수준보다 크다는 것은 평정자들이 분류한 유형이 그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는 우리의식의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명을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응답자 자신이 보다 중

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분류한 신명경험의 유형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신명경험의 유형과 빈도

유형	빈도 (%)	대표적 사례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71 (32.7)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 운동경기에서의 역전승, 복권당첨, 대학합격, 승진, 2세의탄생, 대회에서의 입상, 취업, 자격시험 합격, 자녀의 합격/취업/승진 등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73 (33.1)	월드컵 거리 응원, 운동경기 응원, 대학 축제, 마을잔치, 풍물놀이, 가정의 좋은 일, 공동노동, 친구들과의 파티, 친구 혹은 가족과의 여행, 동창회 등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43 (19.5)	작품 전시회, 연극공연, 악기 연주할 때, 혼자 한 여행, 출출 때, 연등행사 참여, 등산, 마라톤 풀코스 완주, 행사사회를 볼 때,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때 등

개방코딩

다음으로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과 반구조화 면접에서 사용한 6개의 기본 질문들을 바탕으로 개방코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상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즉, 신명을 경험한 사건을 묻는 질문(1번 문항)은 ‘신명경험의 원인’으로, 그때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과정(2, 3번 문항)을

‘신명상태의 감정 및 정서’로 명명하였으며, 그 때 한 행동 및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4, 5번 문항)를 ‘신명상태의 행동’으로, 그 사건이 이후의 마음상태와 생활에 미친 영향(6번 문항)을 ‘신명경험의 기능 및 결과’로 명명하였다.

신명경험의 원인과 감정, 행동과 결과에 해당하는 네 개의 상위범주는 신명경험의 세 종류 유형에 따른 하위범주들을 포함하며, 유형에 따른 하위범주들의 명칭은 표 4와 같다.

표 4. 신명경험의 유형에 따른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신명경험의 원인	- 전환적 사건의 발생 (의외성)	- 계기적 사건의 발생 - 사건이 주는 일탈감 - 외부적 조건	- 자기표현을 인정받는 사건 - 자기표현의 인정 혹은 자각(의외성), - 외부적 조건
신명상태의 감정 및 정서	- 1차적 쾌감 - 자기 개입적 쾌감	- 1차적 쾌감 - 우리 개입적 쾌감	- 1차적 쾌감 - 자기 개입적 쾌감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신명상태의 행동	- 자기가치감 확인하기 - 남들에게 인정받기 - 자기(혹은 집단)가치감의 분출 및 몰입	- 집단가치감 확인하기 - 감정의 분출 - 몰입 및 심취하기	- 감정공유하기 - 자기표현 극대화 - 자기표현 조절하기 - 몰입 및 심취하기
신명경험의 기능 및 결과	- 해소 - 자기가치감의 회복 -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 - 회상 및 동기화	- 해소 - 집단에 대한 애착형성 -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 - 회상 및 동기화	- 해소 - 자기가치감의 확인 -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 - 회상 및 동기화

축코딩

개방코딩의 결과를 바탕으로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우선, 신명경험의 중심현상을 신명상황에서 경험되는 쾌감으로 보고, 신명의 쾌감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출하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이란 개방코딩에서도 추출한 범주들의 의미와 관계를 밝혀서,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중심현상(phenomenon)과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현상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들을 추출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신명의 유형에 따른 각 조건들을 추출하여 그 속성⁵⁾과 차원⁶⁾을 밝혔다.⁷⁾

5) 속성(Properties): 범주가 가진 특징
6) 차원(Dimensions): 범주의 일반적 속성이 변화하는 범위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되며, ‘왜 그 현상이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Strauss & Corbin, 1998). 신명의 유형에 따른 인과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표 5).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에서는 사건 전후의 삶의 질이 크게 변화하는 ‘전환적 사건의 발생’이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전환적 사건의 예로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의 합격(사례 132, 174, 194 등)하거나 복권당첨(사례 175), 월드컵 4강 진출(사례 41, 207)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전환적 사건들은 응답자들의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사례 132),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사례 207) 등의 표현과 같이 ‘의외적’으로 일어나며, 그 사건으로 인해 개인(혹은 집단)의 손상받았던 ‘자기(혹은 집단)가치감이 회복(“실력이 확인된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나 뿌듯함”(사례 45), “피곤한 삶의 일부를 자식의 합격을 통해 보상받았다”(사례 213))’된다는 속성을 지닌다.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에서는 환갑잔치(사례

7)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에서 각각의 범주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속성과 차원을 정리하는 형식은 근거이론의 분석틀을 가장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 간호학의 실례를 따랐다.

77)나 가족여행(사례 86), 대학 축제(사례 18 외 다수), 거리응원(사례 170외 다수) 등의 ‘계기적 사건의 발생’이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기적 사건은 “평소에 그렇게 들고 뛰면서 즐길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사례 6), “오늘 하루밖에 못하니까 그 동안 기쁨과 만족을 충분히 만끽하고 싶었다”(사례 53) 등의 표현과

같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의외성’을 가지며,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사례 59), “내가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소속감 때문에(사례 61)”,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정하게 느껴지고”(사례 224) 등과 같이 ‘우리의식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따른다.

표 5.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유 형	인과적 조건	속 성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전환적 사건의 발생	자기가치감의 회복 전환적 사건의 의외성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계기적 사건의 발생	우리의식의 재확인 계기적 사건의 의외성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자기표현을 하게 되는 사건	자기표현의 인정 혹은 자각 시점의 의외성

마지막으로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에서는 공연이나 발표회(사례 26, 37, 69), 혹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때(사례 144, 210) 등과 같이 ‘자기표현을 하게 되는 사건’이 신명의 감정을 유발하는 인과조건이 되며, 특히 ‘자기표현을 인정받거나(“심사위원 아저씨가 1학년 때보다 많이 나아졌구나 할 때도 좋았고. 남들이 인정해 줄때죠”(사례 26), ‘자기의 가치를 자각(“아, 내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작가와 일치감을 느낄 때”(사례 56))’하는 순간에 신명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시점은 ‘의외적으로(“갑자기 예상치 못했다가 갑자기 닥쳐오는 그 느낌, 환희 그런 거요. 기대를 안 하면 더 크게 와 닿는 그런 거 있잖아요”(사례 26))’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적인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신명의 중심현상은 즐겁고, 가슴 벅찬 신명의 쾌감이라 할 수 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쾌감은 신명의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즉, 기분 좋음, 즐거움, 유쾌함 등의 1차적 쾌감과, 뿌듯함, 가슴 벅참, 자랑스러움 등, 자기 자신 혹은 ‘우리’가 개입되는 2차적 쾌감이 그것이다.

현상: 현상(phenomena)은 ‘여기서 무엇이 진

표 6. 현상의 속성과 차원

유 형	현 상	속 성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신명의 쾌감	1차적 쾌감 자기개입적 쾌감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신명의 쾌감	1차적 쾌감 우리개입적 쾌감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신명의 쾌감	1차적 쾌감 자기개입적 쾌감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들의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쳐서 ‘왜 현상이 지속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에서 도출한 신명의 맥락적 조건들은 표 7과 같다.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신명 경험 이전의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의 자기에 대한 인식’이 주로 신명 발생 이전의 맥락적 조건이라 할 수 있었다. 신명의 특성상 신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명의 감정과 행동의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맥락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즉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의 감정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대한 회상적 감정(“1년 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사례 45))이 포함된다는 사실과,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에서의 ‘스트레스가 해소됨, 신경쓰고 있었던 고민들이 잊혀짐(사례 5)’와 같은 예에서, 그리고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의 경우에도 준비과정의 어려움(“연습을 방학 때 되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했거든요”(사례 26), “저희는 (공연준비에) 방학 2달을 다 바치잖아요? 그래

서 저희는 연주회 한번이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사례 37)) 등의 예에서 ‘과거의 부정적 자기 인식’이라는 맥락적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과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의 경우에는 ‘외부적 조건’이라는 범주(“불(달집 태우기)에 취하는 느낌이 들었고, 가락과 북소리가 내가 가진 감정, 느낌, 심박수와 동조되는 느낌이 들었다”(사례 57), “다른 사람들이 흥분해서 지르는 고함소리와 노래 소리에 기분이 들떴다. 사람들과 어울려 소리를 지르고 뛰며 응원하다보니 제 정신이 아닐 정도로 신이 나 있었다”(사례 62), “음악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몸이 들썩거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게 되고 음악과 몰아일체가 된다”(사례 133))가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이나 소음, 조명 등의 신명을 경험하는 상황의 분위기와 같은 조건들이 신명을 느끼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데 쓰인다.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신명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신명의 중심현상, 즉 신명나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하며, 표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7.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유 형	맥락적 조건	속 성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과거의 부정적 자기인식	과거의 어려웠던 경험 상처받은 자기가치감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과거의 부정적 자기(혹은 집단) 인식	힘들고 지루했던 일상 억눌러 온 자기 소원해진 관계
	외부적 조건	상황이 주는 일탈감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과거의 부정적 자기인식	준비과정의 어려움 자기표현의 욕구
	외부적 조건	조건의 적합성

작용/상호작용 전략 역시,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와는 관계없이 유사한 성격을 보였는데, 그것은 ‘분출 및 발산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에서도 ‘자기표현 극대화’란 궁극적으로 분출 혹은 발산의 행위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신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신명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출 행동들(소리를 지르거나 펄쩍펄쩍 뛰는 등의 각종 표출행동)을 하게 되며,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혹은 집단)의 가치를 확인하고, 부정적 정서 등을 배출한다.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에서의 분출행동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께 승진했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사례 75), “차에 올라가 소리를 외치는 등,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미친 짓들을 가지가지 했다. 그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을까”(사례 172), 또한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에서는 “고함을 지르고 모르는 사람과 포옹하고 크게 웃고 춤도 추고 몸을 가만 두지 못하고”(사례 107), “기쁨, 자랑스러움 등

을 표출하는 등” (사례 43),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대담한 행동들을(사례 5) 하게 된다.

한편,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표현행동을 극대화(“평소에 발성이 제가 많이는 안돼서 끝까지 목소리 올려서 발성을 한다거나, 표정을 더 풍부하게 한다거나, 애드립을 넣거나 하는 것들” (사례 26))하는 등의 분출행동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분출행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표현행위의 통제에는 행위자의 숙련과 기술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출 또는 발산행위를 통해 누적되어 왔던 부정적인 정서들과 욕구들이 해소되는데, 신명의 감정과 더불어 부정적 정서와 욕구의 배설로 얻게 되는 강렬한 해소감(“신나게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번에 날아갔고” (사례 53))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순간의 감정과 행동에 한층 몰입 및 심취하게 된다. 신명경험 중의 이러한 몰입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표 8. 작용/상호작용전략의 속성과 차원

유 형	작용/상호작용 전략	속 성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분출 및 발산행동	자기(혹은 집단) 가치감의 분출 부정적 정서의 배설 몰입 및 심취하기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분출 및 발산행동	집단가치감의 분출 부정적 정서의 배설 몰입 및 심취하기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자기표현 극대화	자기표현 조절하기 몰입 및 심취하기

“현재의 감정에만 충실했고, 평소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는다. 아무 것도 구속받지 않고 현재에만 충실하게, 느끼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사례 35), “붕 뜬 것 같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다.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 62), “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 없이, 오로지 나만 보이고 나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만 존재하는 느낌” (사례 33).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신명이 무아지경 혹은 황홀경의 경험이라는 설명은 바로 이러한 몰입 및 심취의 상태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몰입(flow)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Strauss & Corbin, 1998). 신명에서 중재적 조건이란 신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즉 몰입 및 심취하기와 감정의 분출 및 발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의미하며, 표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중재적 조건 역시 신명의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자기(혹은 집단) 가치감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다른 이들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속성을 지닌다.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에서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가치가 회복된 것을 인정받음으로써(“환호를 했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례 13), “하느님께 먼저 감사했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아버님께 알렸습니다” (사례 208)),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에서는 ‘우리’와 함께 신명을 ‘공경함’함으로써(“혼자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례 1), “주위의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여도 모두 용인될 것 같았다” (사례 57)),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에서는 표현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고 타인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그때 앞쪽에 앉은 관객들 반응이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하게 울거나 슬픈 반응을 보일 때 그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갔구나. 느꼈죠. 공감한다는 느낌. 그럴 때 더 좋

죠” (사례 26)), 주변인들과의 감정을 공유하고, 신명 상황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며, 감정 및 행동의 표출이 적극적으로 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9.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유 형	중재적 조건	속 성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자기가치감 확인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회상 남들에게 인정받기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집단가치감 확인하기	소속감 확인하기 감정 공유하기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자기가치감 확인하기	감정 공유하기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신명의 기능 및 결과’란 신명경험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영향력과 효과 등을 포괄하며, 표 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신명경험의 결과 역시, 신명의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누적된 부정적 정서의 해소로 인한 ‘해소감(“가슴에 돌덩이 하나 없어놓고 사는 그런 기분인데, 그게 확 견여지는 그런 기분” (사례 45), “땀 뚫리는 것 같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 (사례 29), “연습기간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거라는 생각에 전의 나쁜 감정이 확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례 69))’과, ‘자기(혹은 집단) 가치감의 회복 및 확인(“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겼다”(사례 113), “그 공동체

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계속 그 곳에 남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례 36), “나도 할 수 있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며,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110))’, 활력 혹은 적극적인 생활태도 등을 의미하는 ‘긍정적 에너지의 획득(“늘 긍정적이고 노력하려는 자세와 마음을 갖게 해 주었죠. 또한 일단 도전해보는 습관도 생기고, 가능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사례 167),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내려놓게 해 주었다” (사례 148))’, 그리고 ‘신명경험을 회상하고 다시 신명을 경험하기 위해 동기화되는 과정(“영원히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또 생각나는 거 보면” (사례 128), “축체나, 거리옹원이 있다고 하면, 멀리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다” (사례 62), “힘 들고 슬플 때 피아노를 통해 풀게 되었다” (사례 69))’ 등이 신명경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0. 결과의 속성과 차원

유 형	결 과	속 성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신명경험의 기능 및 결과	해소감 자기가치감의 회복 긍정적 에너지의 획득 회상 및 동기화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신명경험의 기능 및 결과	해소감 집단가치감의 확인 긍정적 에너지의 획득 회상 및 동기화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	신명경험의 기능 및 결과	해소감 자기가치감의 확인 긍정적 에너지의 획득 회상 및 동기화

신명 유형의 통합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결과, 세부적인 속성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세 유형의 신명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심리적 과정을 따르며 유사한 감정의 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유형에 따른 인과적 조건은 각각 ‘전환적 사건의 발생’, ‘계기적 사건의 발생’,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자기(혹은 집단)의 가치를 회복 혹은 확인한다는 공통점을 보였고, 현상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한 쾌감을 의미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맥락적 조건 역시 ‘과거의 부정적인 자기(혹은 집단)에 대한 인식’ 및 ‘외부적 조건’으로 동일하였고, 작용/상호작용전략도 ‘분출 및 발산행동’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적 조건에 있어서도 ‘자기(혹은 집단)가치감 확인’을 위해 감정을 공유하려는 공통적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명의 기능 및 결과 역시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

한 속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신명을 포괄하는 이론을 구축하려는 연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신명의 유형들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우선, 세 유형의 신명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경험이라는 전제하에 유형에 따라 구분되었던 범주들을 각각의 속성을 포괄하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신명의 인과조건에 해당하는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회복(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 ‘우리의식의 재확인(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자기 표현의 인정 및 자각(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은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명명하였고, 맥락적 조건은 ‘과거의 부정적 자기(혹은 집단)인식’과 ‘외부적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분출 및 발산’으로 통합하였다. 한편,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범주를 나타내었던 현상, 중재적 조건 및 결과는 각각 ‘신명의 쾌감’, ‘감정공유 및 공경험’, ‘신명경험의 기능 및 결

과'라는 기존 범주명을 유지하였다. 는 통합과정을 거친 후, 통합적인 신명경험의 이와 같이 패러다임의 범주와 속성을 포괄하 패러다임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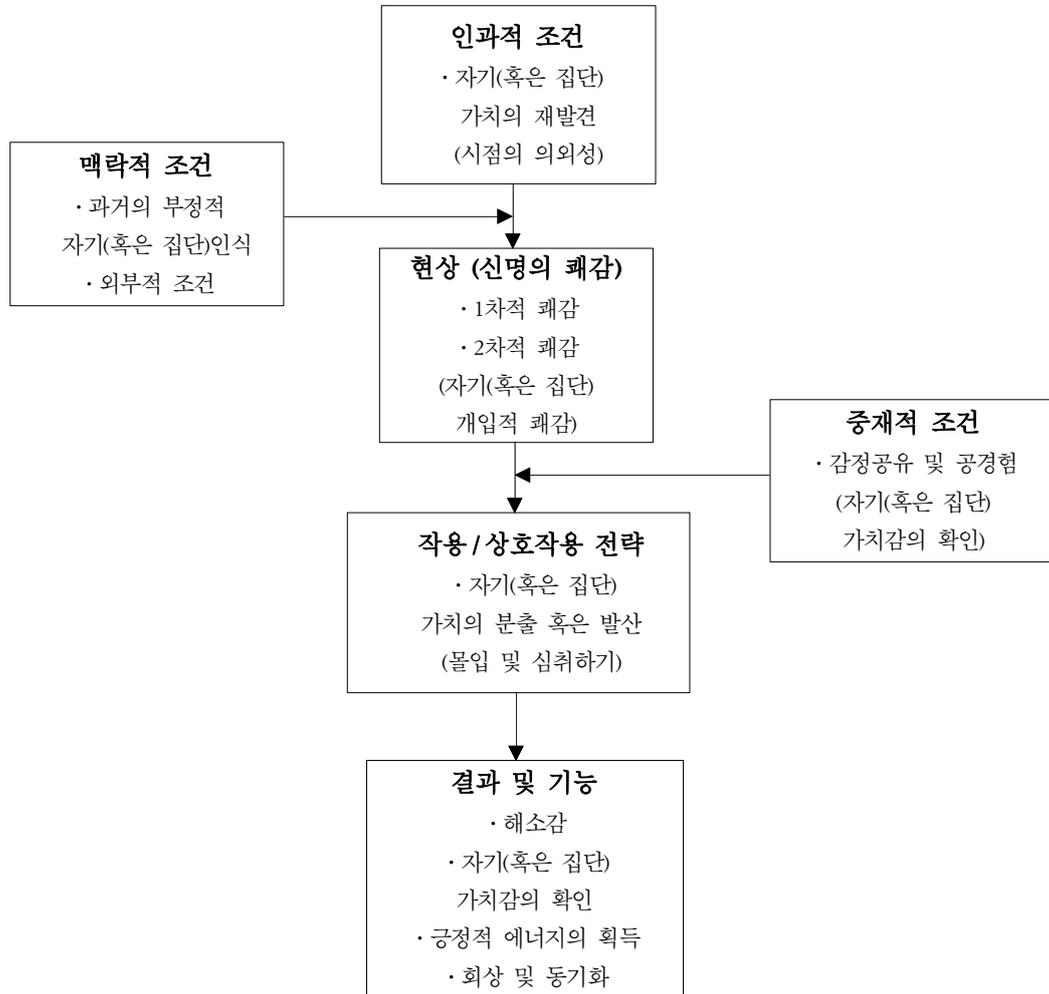


그림 1. 신명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
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
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핵심범주: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재발견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신명경험을 분석
한 결과, 신명경험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재발

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에서 전환적 사건의 발생을 기점으로 손상된 상태였던 자신(혹은 집단)의 가치감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집단)가치감의 회복'과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에서는 어떠한 계기에 의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라는 집단의 존재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의식의 재확인', 마지막으로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에서 표현 행위 중 자신(혹은 집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기표현의 인정 및 자각'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부정적인 국면에서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때 신명을 경험하며, 그러한 전환은 자기(혹은 집단)가치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낀다. 자기가치감의 손상을 의미하는 한(恨)은 그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이다.

그러다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그러한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 부정적 상태에 있던 자기(혹은 집단)가치감이 회복되거나 재확인되면서 강렬한 쾌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이며, 이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하게 되는 몇 가지의 경우가 신명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연구로부터 도출된 신명의 유형 세 가지는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과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 그리고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이며, 이들 각각은 자기(혹은 집단)가치감이 회복되거나 자신 혹은 타인들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야기 윤곽(Story Line)의 전개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재발견이 신명경험의 핵심범주이긴 하지만 신명경험이 자기가치의 재발견이라는 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인 신명경험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들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의 형태를 서술하는 이야기 윤곽(Strauss & Corbin, 1998)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각 범주들 즉,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중재적 조건, 결과 사이의 관계를 서술적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신명경험 이전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 혹은 지루한 일상**으로 묘사된다(**맥락조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조로운 일상, 삶의 무게 등으로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괴로움 등이 누적되어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은 집단 자체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간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기(혹은 집단)가치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한 부정적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신명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인과조건)**. 그것은 **부정적인 자기(집단)가치감을 일거에 회복시키거나, 자기(혹은 집단)가치감을 긍정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유쾌함과 즐거움의 감정인 신명의 쾌감이 발생하게 된다(현상)**. 이전의 상태가 부정적이었을수록 이 때 느끼는 쾌감은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적인 조건(맥락적 조건)**의

작용에 따라 그러한 쾌감이 강화될 수도 있다.

신명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선 기쁨, 즐거움, 신남, 유쾌함 등의 1차적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거나, 자신 혹은 집단의 의미와 가치를 반복해서 재확인(중재적 조건)하면서 자랑스러움, 뿌듯함 등의 2차적인 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쾌감은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의 과정(중재적 조건)을 통해서 증폭·극대화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감정이나 행동의 표현(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자유롭게 한다.

감정공유의 과정을 통해 감정과 행동의 표현이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극대화된 감정들을 표출하기 위해 고함, 춤, 노래, 도약, 표현행동 등의 분출행동(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하게 된다. 또한 신명의 쾌감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대한 그 상황에 몰입 및 심취하며, 이러한 감정의 분출의 결과는 다시금 신명의 쾌감을 강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분출 혹은 발산의 과정은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신명을 경험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인 경우에,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탈적 조건이 확보되는 경우에 보다 명확히 드러나며, 특히 축제나 놀이 등, 일탈적인 상황을 마련하게 되는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일 때에는 이 단계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출행동은 표현행위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여러 조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결과)로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의 배설로 인한

해소감 외에도 자기(집단)가치감의 회복 및 확인으로 인한 긍정적 자기가치감 및 또 다른 나날을 살아갈 활력과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신명상황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회상 및 동기화의 과정은 신명경험의 사후에 일어난다. 신명경험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에 경험한 신명에 대해 회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다시 활력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은 그러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신명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한민, 한성열(2007)의 신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신명을 경험하는 일반인들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신명이 언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험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일반인들의 생생한 신명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과 반구조화 면접 등의 질적인 방식을 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의 틀에 의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첫 번째는 일반인들의 신명경험이 실제로는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실제 신명경험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적어도 세 차원, 즉 ① 전환적 사건에 의한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회복, ② 공감과 공경험을 통한 우리의식의 재확인, 그리고 ③ 자기표현 행위에서의 자기가

치의 확인 등에 의해 신명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이 풀리면 신명이 난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에서 나아가 사람들이 실제로 신명을 경험하는 방식을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방법으로 규명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으며, 신명이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 이제까지의 신명에 대한 논의가 왜 서로 이질적인 분야들에서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또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명을 경험하는 차원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명이라는 개념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신명경험의 구조화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명경험의 전반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조건들 및 그 역할들을 밝혔다. 요약하자면, 신명경험은 자신(혹은 집단)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쾌감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쾌감은 신명 이전의 상황이 부정적이었을수록, 또는 신명상황의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조절된다. 신명의 쾌감은 다른 이들 과의 감정공유를 통해 한층 증폭되며, 이러한 감정들을 조절하기 위해 분출 및 발산행동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신명의 쾌감을 다시 강화하게 된다. 또한 신명경험은 부정적 정서의 해소 및 자기가치감의 고양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험되는 신명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신명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으로, 신명을 유발하는 사건들은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억눌려 있었거나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가 전환적 사건의 발생에 의해 회

복되거나, 어떠한 계기에 의해 확인될 때,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식에 의해서 표현될 때가 그것이다.

신명이 자기(혹은 집단)가치와 관련된 경험이라는 사실은 신명의 성격을 규정한다. 신명은 한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문화적 정서이다. 일반인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한국인들이 ‘신명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특정한 의미와 과정을 포함한 경험에는 다른 정서와는 구별되는 ‘신명난다’는 설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사람들이 신명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명에 대한 문화적 도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명 개념의 타당화를 위해 별도로 수행한 연구(한민, 한성열, 2007, 미간행)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신명난다’라는 정서와 일반적인 ‘신난다’라는 정서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5명 중 85명(80.9%)). 사람들은 ‘신명난다’는 표현은 과거의 경험이 연관되거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등 ‘신난다’보다는 깊고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42명(40.0%)), ‘신난다’라고 말하는 상황보다 훨씬 강렬하고 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23명(21.9%)), 집단적으로 경험되거나 인간관계가 전제된다는 점에서(11명(10.5%)), 신명이 ‘신난다’라는 정서와 구별된다고 보았고, ‘신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으로 월드컵의 거리응원과 전통적인 마을굿, 대학 간 정기전(교연전) 등을 꼽았다. 즉, 신명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의미와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적인 정서이며, 그러한 인식은 한국인들의 심리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감 및 공경험의 과정이다. 앞과 같은 이유에 의해 유발된 신명은 그 구체적인

원인과 무관하게 공유되고 공경험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된 신명을 집단적 신명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경험되는 신명도 존재하겠지만, 신명은 기본적으로 공감 및 공체험의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한국문화에서 신명의 의미를 논할 때 개개인의 신명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이되는 공감 및 공경험의 과정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명경험에서의 공감은 기존의 심리학 혹은 상담심리학에서 언급되는 공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Rogers(1961)는 공감(empathy)이란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공감이란 한 주체가 상대방의 내면세계로 들어가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명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은 단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총체적 경험을 공유하는 공경험(共經驗)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공경험은 감정 공조(affect attunement)와 유사한 작용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 공조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를 공유하고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느끼고, 경험하고, 조절하는 등의 심리적 과정을 의미한다(Stern, 1985). 이러한 감정 공조는 유아기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습득되었으리라 생각되며(Stern, 1985; Sulliban, 1953), 개인들이 하나된 내적 감정 상태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Fouts, 1994; Hrynychak and Fouts, 1992; Fouts and Schwartz, 1996).

한국인들의 우리-정 관계에서 비롯되는 심정교류(최상진, 1999)는 바로 이러한 감정 공조의 문화적 양상이라 생각된다. 심정교류라는 문화적 감정전달방식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신명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속도는 대단히 빠르며, 신명의 이러한 속성에서 ‘신바람’과 같은 말도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혹은 소수의 감정이 집단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신명경험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신명경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번째 과정은 표현 혹은 분출행동이다. 신명 유발 원인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명에 있어서 표현 혹은 분출행위가 갖는 의미는 크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극대화된 자기가치감 및 쾌감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되는데, 신명에서 이러한 표현 및 분출행동이 결여되어 있다면 신명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신명의 많은 긍정적 효과들은 이러한 분출행동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즉, 신명의 행동은 신명의 쾌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은 분출행동이 쾌감을 강화하는 그러한 상황에 몰입하게 된다.

신명의 이러한 측면은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서 난장(이상일, 1981) 혹은 ‘제의적 광란(orgy)’(김열규, 1982)이라 묘사되는 부분이다. 개인 혹은 소수의 강렬한 긍정적 정서가 집단적으로 전이되거나 공경험되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집단적인 감정, 욕구, 에너지의 발산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신명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분출 및 발산행동은 신명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자체가 신명의 쾌감을 강화하기도 한다.

한편, 신명경험에서 나타나는 분출행동은 그 결과가 부정적 정서의 배설이라는 측면에서 카타르시스(Catharsis)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보통 문학이나 예술분야에서 사용되는 카타르

시스는 비극(悲劇)에서 경험되는 연민과 공포를 통해 얻어지는 감정의 배설을 의미하는 데 반해, 신명은 자기(혹은 집단)와 관련된 가치를 발견한 기쁨을 자각하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자신(혹은 집단)의 가치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들을 부차적으로 배설한다는 면에서 카타르시스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마광수(1988)가 말했듯이 카타르시스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의 해소 등의 의미로 범용될 수는 있으나, 신명은 신명만의 독특한 의미와 과정을 갖는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한, 분출 및 발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몰입 및 심취의 국면은 Csikszentmihalyi(1988)의 몰입(flow)과 구분된다. 과제난이도와 숙련도의 함수로 정의되는 몰입(flow)이 어떠한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뜻한다면, 신명경험 중의 몰입은 분출 및 발산의 행위를 비롯한 그 순간의 것들, 즉 외적인 조건 및 주위 사람들과의 교감, 자신(혹은 집단)의 가치를 확인하고 되새기려는 총체적 노력 등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술행위 중에 경험되는 신명에 있어서는 몰입(flow)경험과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으나(“제 짧은 생각에는 음악이 극대화되는 때는 자기 자신이 없어질 때가 극대화되는 거 같아요. 악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의식을 가지고 막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음악에 푹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례 37)), 신명경험에는 그 표현행위가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며(자기가치의 개입), 과거의 경험 등을 떠올리며 그러한 자기가치를 되새기고 재확인하는 과정이 따른다(“지금 생각해 보면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 애들이 객원을 오면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직업도 아닌 거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는 거에 자기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인상적이라고 해요. (중략) 개네들은 연주회 한번 하는데 연습 몇 번 하고… 오케스트라 한곡을 하는데 연습을 보통 모여서 하는 게 3번, 많으면 5번 정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는데, 저희는 방학 2달을 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주회 한번이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저희는 어쩔 땐 울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 37))는 점에서, 행위 자체에의 몰입과 그로 인한 즐거움 때문에 자목적적으로 동기화되는 몰입(flow)과는 다른 종류의 마음 경험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인 개개인의 신명 경험을 토대로 신명 경험의 과정과 구조를 파악했다는 데 있다. 과거의 신명에 대한 논의가 연구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통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면, 본 연구는 신명을 개인의 경험으로 보고 일반인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명 경험의 과정과 구조 및 그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참고문헌

- 김열규 (1982). 한국인의 신명. 서울: 주류.
 김준희 (2005). 댄스스포츠 경력에 따른 신명감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49-55.
 마광수 (1984). 음악사상과 카타르시스. 인문과학 52, 1-15.
 마광수 (1988). 카타르시스의 실제적 효용에 관한 연구. 延世論叢 24, 1-27.
 오율자 (1995). 춤에서의 신명체험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18, 161-172.

- 유진, 김장우 (2004). 프로 한국무용수의 신명 경험.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1), 97-112.
- 이규태 (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 이상일 (1981). 굿과 놀이. 서울: 문음사.
- 이어령 (1982, 9, 23).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 조동일 (1997).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연극·영화미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생극론의 해명. 서울: 지식산업사.
- 채희완 (1983). 집단연회에 있어서 예술체험으로서의 신명. *호서문화논집*, 2, 107-121.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한민, 한성열 (2007). 신명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83-103.
- 한민, 한성열 (2007). 신명에 대한 사회적 표상 분석. 미간행.
- Bowers, B. (1990). Grounded theory, In B. Sarter (Ed.), *Paths to knowledge* (pp. 29-33).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 Charmaz, K. (2000). Grounded theory: Objectivist and constructivist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09-534). Thousand Oaks, CA: Sage.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42.
- Csikszentmihalyi, M. (1988). *Introduction in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U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Csikszentmihalyi, M. (1999). 몰입의 즐거움 [*Finding flow*]. (이희재 역). 서울: 해냄.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Csikszentmihalyi, M. (2003). 몰입의 기술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이삼출 역). 서울: 더블어책. (원전은 2000년에 출판)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Press, 23.
- Eisner, E. (1991).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Y: Macmillan.
- Fouts, G. (1994). *Moments of "connection" on television and in the movies*. Paper presented to the Canadian Communications Association, Calgary, Alberta.
- Fouts, G., & Schwartz, K. (1996). *Music and affective attunement by adolescents*. Paper presented to the Canadian Communications Association, St. Catherines, Ontario.
- Glaser, B. & Strauss, A. (1966). The Purpose and Credibility of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Research*, 15, 56-61.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 Goetz, J. & Le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Y: Academic press.
- Hones, D. F. (1998). Known in part: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narrative inquiry. *Qualitative inquiry*, 4(2), 225-248.
- Hrynchak, D & Fouts, G. (1992). *Affective attunement profiles of university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anadian

- Psychological Association, Quebec City, Quebec.
- Hrynchak, D & Fouts, G. (1998). Perception of affect attunement b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1, 43-48.
- Mason, J. (1999).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전은 1996년에 출판)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81.
- Smith, B. (1999). The abyss: Exploring depression through narrative of the self. *Qualitative inquiry*, 5(2), 264-279.
- Spradley, J.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tainback, S., & Stainback, W.(1992).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김병하 역).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Stern, D. N. (1985).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inc.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Wertsch, J. V. (1998). *Mind as 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lcott, H.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1 차원고접수 : 2007. 10. 25

수정원고접수 : 2007.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7. 12. 3

A qualitative study of conceptualizing ‘Shinmyeong’

Min Han Seongyul Ha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nerate a substantial theory about Shinmyeong experience. This study was executed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based on Strauss and Corbin(1998). Open-end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220 participant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participant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ree types of Shinmyeong experiences assumed by theoretical study were demonstrated and their categories were extracted by open coding. The structures of their categories were concretized by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causal condition was 'Recognition of self(or group) worth', the contextual condition was 'Negative perception of past self(or group)', the phenomena were 'Primary pleasure' and 'secondary pleasure', the intervening condition was 'sharing pleasure(co-experience)', the action / interaction was 'Radiating the self(or group) worth', and the consequence was 'sense of freedom', 'Acquirement of positive feelings' and so on.

According to the results, Shinmyeong experience consists of three phases; pleasure from recognition(or expression) of one's self-worth, sharing the feeling with other people, and radiating negative feeling through expressive behaviors.

Key words: Cultural Psychology, Shinmyeong, Grounded theory, Qualitative